

'4분의기적' 나주시,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중점

골든타임 확보 위한 공직자 대처 역량 강화

나주시 공무원들이 손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을 연마했다.

나주시는 지난 14일부터 3일 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올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한안전연합 광주지사 소속 강사를 특별

초청해 진행했으며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공직자 대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총 8차시에 걸쳐 '문제인식-119신고-응급처치'로 이어지는 응급환자 최초 목격자 행동 요령과 이론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관리방법 등을 다뤘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률은 약 7.5%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1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장마비 증상 이후 4분 이전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박동이 돌아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인명 구조 확률이 높다.

그러나 4분 이후부터는 '뇌손상 50% 진행'(4~6분), '뇌손상 확실'(6~10분), 10분 이상이 경과하면 극심한 뇌 손상 또는 생존률 0%인 '뇌사' 상태에 이르게 돼 4분 이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해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라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농촌지도자회, 2022 연말총회 실시

우수 회원·단체 수상, 사랑의 쌀 100포 기탁 등 풍성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회장 정승재)가 15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말총회를 열고 우수 회원, 우수 단체를 선정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과 읍면 일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말총회에서 2022년 활동보고, 사업 결산, 특강, 사랑의 쌀 기탁식이 있었다.

한천면 정찬귀, 능주면 윤흥만, 사평면 이몽영 씨가 우수 회원으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받았다. 군수 표창 외에 정승재 화순군연합회 회장과 동면 주영호 씨는 각각 국무총리와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활동이 우수한 읍면농촌지도자회의 격려하기 위해 우수 단체 3곳도 선정했다. 사평면회, 청풍면회, 동면회가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 선정돼 한국농촌지도자화순

군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쌀 기탁식이 있었다. 농촌지도자회와 4-H연합회에서 각각 쌀 50포(20kg)씩 총100포를 기부했다.

정승재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 회장은 "더불어 잘 사는 농촌만들기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농촌지도자회 임원과 회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지도자회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석곡농협, 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 수상

곡성군 석곡농협(조합장 한승준)이 지난 14일(수) 농협중앙회 '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석곡농협은 산지유통 조직·시설·인력 혁신 사례 공유 포럼에서 생산·출하 시스템화 부문 친환경농가 일관지원 체계화 우수모델 선두 농협으로 선정됐다.

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 시상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우성태 농업경제 대표이사, 석

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을 비롯하여 수상 조합장,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곡성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은 친환경 백세미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한 일관 지원 체계화를 완벽히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 산지유통혁신대상 수상은 백세미를 고품질로 생산해낸 농가들과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의 노력, 곡성군

의 전방위적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쾌거로 현재 어려운 쌀 시장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계약단계부터 육묘, 이앙, 수확, 건조, 저장, 도정, 판로확보 및 브랜드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지원 함으로써 영농부담을 경감시키고 높은 수매가 지급을 통해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상 수상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판로 개척 사업 등 높은 평가



담양군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전

라남도 일자리한마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 시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 경제정책 발굴 및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수변사례, 물가안정관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담양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담주 다미담예술구 운영과 '즐겁고(GO) 걱정비워(Beer)' 맥주축제를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판로 개척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힘쓴 점, 313억 원 규모의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신속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해 소비 촉진 성과를 거둔 점에서도 높은 관심을 얻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새로운 담양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식 개최

구례군은 12월 13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대학은 2020년에 선정된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과정은 10월 20일부터 매주 1회식 총 9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의 골목 벽화, 쓰레기 분리수거장, 마을 산책 쫓길 만들기 주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하였다.

주민들의 디자인 결과물을 활용하여 향후 주민들이 직접 마을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